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10월 뉴욕제조 신규 주문과 출하지수 하락
- WSJ: 미 경제 불황, 더 이상 합의된 여론이 아니다
- WSJ: 미국의 연착륙, 다른 지역에는 어려움 될 수 있어
- WSJ: 경제 침체, 더 이상 합의된 여론이 아니다
- Bloomberg: 옐런 장관, “미국에서 고금리 계속될 수 있어”

[미국 금융]

- WSJ: 미 경제는 강한데 소비재 주식들이 왜 크게 떨어지나?

[철강]

- WSJ: 트럼프 당시 관세로 미국과 유럽 충돌

[반도체]

- WSJ: 미국, 중국의 첨단 칩 기술 접근 제한 강화 계획
- Bloomberg: 한국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수출, 회복세로

[에너지]

- WSJ: 미 휘발유 가격 이제는 하락... 수요 감소가 원인

[주택]

- WSJ: 모기지 사태 이후, 주택 거래량 가장 낮다
- Bloomberg: 필라은행총재, “고금리가 주택가 상승에 영향”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CNN Business: Rite Aid, 파산 보호 신청하다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New York Manufacturing Contracts on New Orders, Shipments

10월 뉴욕제조 신규 주문과 출하지수 하락

- 10월 뉴욕주 제조활동 지수가 하락해 수요가 줄고 인플레이 압력 둔화를 시사하고 있다.
- 오늘 월요일 뉴욕연방은행 일반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이달에 6.5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4.6을 기록했다. 제로 미만은 위축을 나타낸다.
- 제조업 분야는 금리 상승, 지속적인 인플레이와 미약한 글로벌 수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.
- 신규 주문 지수는 10월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출하지수는 상당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정 영역에 머물러 있다.

Bloomberg 기사

WSJ: A Recession Is No Longer the Consensus 미 경제 침체, 더 이상 합의된 여론이 아니다

- 최신 분기별 조사에서,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 경제전망을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며, 경제불황 가능성을 54%에서 48%로 낮췄다. 수치가 50% 아래로 내려간 것은 작년 중반 이래로 처음이다.
- BMO 경제학자인 Doug Porter와 Scott Anderson은 금융시장이 완화되고, 노동시장이 강한 회복성을 띠고 있으며, 실질소득의 증가가 소비자 수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황 가능성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.
- 낙관적인 경제 전망의 핵심 세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. 1) 인플레이션율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, 2)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췄고, 3) 강한 노동시장과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.
- 경제학자들은 평균적으로 2023년 4분기 GDP가 작년 대비 2.2%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WSJ 기사

WSJ: A Soft Landing in the U.S. Could Be Hard for Everyone Else 미국의 연착륙, 다른 지역에는 어려움 될 수 있어

- 요지: 중동에서의 갈등, 치솟는 글로벌 금리, 그리고 높은 오일 가격이 글로벌 회복을 힘들게 위협하고 있다.
- 미국 경제의 놀랄만한 강세는 다른 국가들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 금리 인상이 장기화되고 강달러가 다른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.
- 많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정책 긴축 사이클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여름 이후 오일가격 급등해 인플레를 자극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.
- IMF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는 모로코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한달만에 그곳에서 가진 1주일간의 금융 관리들과의회의에서 “경제적 부의 격차가 깊어지고 있다”고 경고했다.
- 더우기 이스라엘과 가자지구간의 분쟁이 에너지 시장에 변동성 위협을 주면서 러시아 전쟁이후 원자재 혼란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.

WSJ 기사

WSJ: U.S. Could See 4.5% Unemployment in 2024, Philadelphia Fed's Harker Says

필라 은행총재, “내년 미 실업률 4.5% 가능성”

- 지난 금요일, 한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는 대량 해고는 아닐지라도, 미국이 잠재적인 고용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.
- 필라델피아의 연방은행총재인 Patrick Harker는 내년에 실업률이 4.5%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, 2025년에 4%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.
- 현재 실업률은 3.8%이며, 고용시장은 2023년 동안 상당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.

WSJ 기사

Bloomberg: Janet Yellen Says Higher Interest Rates May Persist in

엘런 장관, “미국에서 고금리 계속될 수 있어”

- 재닛 엘런 연방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좋은 상황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고금리가 계속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.
- 그는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생산의 98%에 달하는 미국 부채의 이자는 계속 관리할 만하다면서 불확실하지만 고금리가 계속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. 그리고 “우리의 재정상황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아닌 상황인데 우리는 이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”고 덧붙였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If the Economy Is So Strong, Why Are Consumer Stocks Tanking? 미 경제는 강한데 소비재 주식들이 왜 크게 떨어지나?

- 요지: S&P 500 소비재 섹터에 24개 이상의 주가 10월에 52주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.
- 해당 주는 구체적으로 필수 소비재와 임의 소비재 부분에 속하는 주식들로 달러 제너럴, 타겟 등의 소매업체들, 크래프트 하인즈, 코나그라 브랜드 등 식품업체와 클로록스와 콜게이트 팔모리브 등 소비재 제품 회사들이다.
- 미국 경제가 호황을 일반적으로 누리는 것 처럼 보이지만, 소매 부분 전반에 걸쳐 소비자들은 구매에 신중이 기하기 시작했다. 특히 해당 주식들의 하락은 국채 수익률의 급격한 상승과 맞물려 필수품 주식의 매력 떨어지고 있다.

WSJ 기사

[철강]**WSJ: U.S. and Europe Clash Over Trump-Era Tariffs****트럼프 당시 관세로 미국과 유럽 충돌**

-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가 유럽에 부과했던 관세 부과 철회를 주저해 양국 간에 관계 어둡다.
-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근거로 주장하며 대부분의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했다. 이로 인해 유럽국가들은 분노했고 일부는 부복관세를 부과했다.
-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이후 분쟁 중단을 발표했고, 내년 1월까지 철강과 잉 공급과 이에 따르 기후 여파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모색하고 있다.
- 그러나 이와 관련 다음주 바이든과 EU 최고관리들 간에 합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.
- 분쟁 해결 내용보다는 현재의 관세 싸움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같은 연장은 내년 대통령 선거때까지 갈수 있다는 것이다.

WSJ 기사

[반도체]**WSJ: US to Tighten Curbs on China's Access to Advanced Chip Tech****미국, 중국의 첨단 칩 기술 접근 제한 강화 계획**

-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중국 접근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국이 군사적 이점을 가질수 있는 첨단 기술 확보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.
-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 중국 제한 조치들을 개선하고 그 일부 허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.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용 그래픽 칩 판매 통제와 고급 칩 장비 판매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.
- 미국은 또한 중국 회사들이 선적을 우회하 수출 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의도를 추가적으로 제한하고, 중국 칩 제조 회사들을 무역 제한 목록해 추가해서 해외 제조업체들이 이같은 중국 회사들의 주문을 채우려면 미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할 예정이다.

WSJ 기사

Bloomberg: South Korea's Nand Flash Memory Chip Exports Return to Growth**한국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수출, 회복세로**

- 한국 낸드 플래시 메모리 수출이 1년만에 처음으로 상승해 그동안 반도체 수요 슬럼프가 다시 회복하는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.
- 한국정부의 월요일 발표에 따르면 출하량이 9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.6% 증가했고, 8월에 연간 대비 8.9% 했다.
- RAM(랜덤 액세스 메모리) 수출은 같은 기간 24.6% 줄었으나 한달전의 35.2% 감소폭 보다 줄었다.

Bloomberg 기사

[에너지]

WSJ: Gas Prices Fueled Summer Inflation. That Is About to Change 미 휘발유 가격 이제는 하락... 수요 감소가 원인

- 미국 전역에 주유소들이 휘발유 가격을 낮추고 있으며, 월가의 트레이더들은 앞으로도 몇 주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.
- 이번 유가 감소는 미국 내 여름 휴가철이 끝나면서 발생하는 주기성 유가 하락이 원인으로 보인다. 또한 분석가들은 지나치게 높은 유가가 운전자들의 휘발유 수요를 감소시켜 유가가 하락했다고 보고 있다.
- 11월 뉴욕항에 도착하는 도매 휘발유 선적 계약량은 지난 8월 11일 고점을 찍은 이후 23% 이상 감소했으며, 최근엔 갤런당 2.2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.
- 휘발유 가격의 하락은 정유업체들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, 미국의 기준 유가는 9월 27일 이후로 6.7% 감소한 배럴당 87.69달러로 떨어졌다.

WSJ 기사

[주택]

WSJ: Home Sales on Track for Slowest Year Since Housing Bust 모기지 사태 이후, 주택 거래량 가장 낮다

- 2023년 높았던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주택 거래량을 가장 낮은 수치로 끌어 내리고 있다.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처음이다.
- 부동산 중개업체 Redfin의 경제 연구 책임자인 Chen Zhao는 모기지 금리가 내년에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내년 주택 판매량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.
- 또한, 주택 판매량 감소의 원인으로 상승하고 있는 대출비용과 기록적으로 높은 집값 그리고 상당히 제한된 주택 매물을 꼽았다.
- 그는 2023년 총 현재 주택 판매량은 약 410만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.

WSJ 기사

Higher Rates Contribute to Rising Home Prices, Fed's Harker Says 필라은행총재, “고금리가 주택가 상승에 영향”

- Patrick Harker 필라연방은행 총재는 “고금리가 용자비용을 올리고 주택 재고를 줄임으로써 주택 첫 구입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면서 결국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.
- 그는 오늘 월요일 모기지은행협회 개치 필라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고금리가 현재 주택 소유자에 매물 리스트에 등록을 주저하게 만들어 매물이 타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CNN Business: Rite Aid files for bankruptcy Rite Aid, 파산 보호 신청하다

- Rite Aid 가 어제 일요일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. 이는 그동안 Rite Aid가 업계에서 2인자로 밀려나고, 불법적으로 오피오이드를 처방했다는 이유로 값비싼 법정 공방을 다투면서 상황이 악화한 게 원인으로 보인다.
- 이 기업의 경쟁사인 CVS와 Walgreens 또한 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. 아마존과 월마트, 타겟,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할인 체인점이 전국의 약국 체인점들을 대체하면서, CVS와 Walgreens 체인점들 또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.
- 그러나, Rite Aid 상황은 CVS 같은 라이벌 기업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,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.
- 이 기업은 손실이 지난 분기 상당히 증가했다고 밝혔으며, 6년 동안 거의 30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.

CNN Business 기사

[보고서]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IMF "스태그플레이션 오면 세계 주요은행 자산 1/3 위험"

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, 세계 2% 역성장 가정 아래 스트레스 테스트

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(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)이 닥치면 세계 주요 은행 자산의 3분의 1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국제통화기금(IMF)이 15일 경고했다.

IMF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'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'(GFSR)에는 전 세계 33개국, 약 900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담겼다.

보고서는 세계의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60여 개 은행의 자본 수준이 낮다는 점을 확인했다.

모두 합치면 글로벌 은행 자산의 약 5%를 차지한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